

## 7월 출생아 역대 최저, 사망자 역대 최대



▲ 서울의 한 종합병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저출산 여파에 한국의 올해 7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결혼 건수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0.78명까지 폭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올해 더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1만9,102명으로, 7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반대로 7월 사망자 수는 2만8,239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166명(8.3%)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사망자 수는 지난 5월(0.2%) 이후로 증가세다.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사망자 수는 늘면서 7월 인구는 9,137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4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앞서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던 혼인 건수는 3개월 만에 다시 감소(-5.3%)로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주로 혼인이 줄었다."면서 "한동안 코로나19 이후로 미뤄졌다가 진행된 혼인이 많아 혼인 건수가 증가하다가 이번에 감소세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7월 이혼 건수는 1년 전보다 34건(0.5%) 감소한 7,500건이었다.

## 경차 판매 급증... 경기 침체 등 원인

한국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5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기아 경차 레이의 올해 1~8월 판매 대수는 3만 3,801대로 전체 차종 가운데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해선 판매량이 16.8% 증가했다.

올해 한국에서 새로 팔린 경차가 총 8만1,775대인데, 이 가운데 41%가 레이일 정도다. 8월 판매는 4,402대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55.2% 급증했다.

업계에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가격과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차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현대차 캐스퍼와 기아 모닝은 올해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각각 8.4%, 9.4% 줄



▲ 기아 경차 레이. 사진=기아자동차

었지만 8월만 놓고 보면 각각 15.2%, 35.2% 증가했다.

한국의 경차 시장은 2012년만 해도 규모가 20만2,844대 달했지만 대형차·고급차에 대한 선호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2020년과 2021년엔 10만대 선이 무너졌다. 하지만 작년 판매량이 13만2,911대로 반등에 성공했고, 올해도 무난히 10만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경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레저 용도나 배달 등 집차로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다마스와의 같은 경상용차가 단종되면서 일부 수요가 경차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30 청년층 소득 대비 금융부채 전연령 '최고'

20·30대가 전 연령층을 통틀어 소득 대비 가장 많은 무거운 빚을 진 상태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구주가 34세 이하인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9배로 모든 연령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많았던 집단은 35~44세 가구주 가구였다. 이들의 금융부채 비율은 1.46배로, 34세 이하 가구주와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가구주가 40대 후반 이상인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 내외로 계산됐다.

주목할 점은 10년 전만 해도 20·30대 가구의 빚 부담



▲ 20·30대 청년층의 금융부채 비율이 모든 연령 집단 가운데 가장 높다. 사진=shutterstock

은 모든 연령 집단 가운데 제일 낮게 나타났다. 사실이다.

지난 2012년 34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0.53배로 전체 집단 중 가장 낮았다. 당시에는 ●45~54세(0.68배) ●35~44세(0.73배) ●55~64세(0.76배) ●65세 이상(1.04배) 등 모든 연령층이 34세 이하보다 무거운 빚을 지고 있었다.

한국은행은 "청년층은 자산 측면에서 채무상환능력(부채/순자산)이 계속 저하되는 가운데 최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청년층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부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년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22	\$2,465
Asset Limit	\$16,660	\$33,240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T.714.872.9377